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7. 5.(월)

■ (언론 동향) 2021.7.5. "한국농업신문" 보도

-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지속, 비료업계 타격
 - 요소 66%·염화칼륨 42%·DAP 56% 급등
 - 영업손실 눈덩이...농협중앙회 계약단가 인상 요구



지속적인 무기질비료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이 지속되고 있어 비료업계의 타격이 깊어지고 있어 서둘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올해 초부터 급등하고 있는 무기질비료 국제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해상운임 인상과 인도의 입찰 수급 불안, 중국 비료 수출 통제 강화, 국제 수요 증가 등으로 무기질비료 원자재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연말대비 요소 가격은 66%, 염화칼륨 42%, DAP 56% 급등했다.

요소는 중국산 프릴 요소가 지난주 대비 6월 25일 현재 톤당 23\$가 인상돼 최고 470\$/톤 이고 그레놀 요소도 해상운임 25~30\$가 포함돼 480\$/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5일 FOB 454\$/톤으로 지난해 11~12월 274\$/톤보다 66% 폭등했다.

염화칼륨도 북미·남미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세이며, 현재 국내 수입가격은 6월 25일 CFR 333\$/톤으로 지난해 11~12월 235\$/톤보다 42% 급등했다.

DAP(인산암모늄)도 북미·남미의 수요 강세로 6월 25일 FOB 568\$/톤으로 지난해 11~12월 365\$/톤보다 56% 급등했다.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7. 5.(월)

문제는 사전에 준비해 놓은 원자재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7월에서 8월 초까지는 농업 현장 비료 공급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는 물량 공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 “이미 준비해 놓은 원자재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원자재 수급에 따른 부담은 오롯이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농업 현장에 원활한 비료 공급을 위해, 비료 생산 업계의 생존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계약단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둘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경영위기 및 영업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비료업계의 후퇴는 물론 농업 발전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조비, 팜한농, 풍농, 한국협화, 세기, KG케미칼 등 무기질비료 6개 생산업체는 지난 4월부터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위기 및 영업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비료 납품처인 농협중앙회에 올해 계약단가의 인상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정민 기자>